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김 도 훈 (산업연구원 원장)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른바 ‘주력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인식될 정도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주력산업들이 세계 5위권 (수출 기준)의 위상을 보이고 있고, 주요 시장점유율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순위 (괄호는 생산순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조선	21.8%(2)	26.2%(2)	39.1%(1)	38.0%(1)	32.9%(2)	32.9%(2)	NA(2)
자동차	2.7%(10)	5.0%(5)	5.3%(5)	5.5%(5)	5.4%(5)	5.4%(5)	5.1%(5)
기계	0.9%(18)	1.6%(14)	1.9%(11)	2.5%(10)	3.0%(9)	3.3%(8)	3.3%(8)
철강	3.0%(7)	4.9%(6)	5.1%(6)	4.3%(5)	4.2%(6)	4.6%(6)	4.2%(6)
석유화학	1.8%(14)	5.0%(5)	5.2%(4)	4.9%(5)	5.5%(5)	5.2%(5)	5.2%(4)
섬유	6.6%(3)	5.6%(3)	5.0%(4)	2.7%(6)	2.1%(8)	2.0%(8)	1.9%(8)
반도체	3.1%(3)	10.4%(3)	7.4%(3)	10.5%(3)	14.1%(3)	14.6%(3)	16.2%(2)
휴대폰		1.0%(—)	5.0%(4)	19.4%(3)	29.9%(2)	29.6%(1)	31.5%(1)
디지털 TV			15.8%(2)	20.1%(2)	36.0%(1)	42.7%(1)	42.3%(1)
디스플레이			38.0%(1)	40.7%(1)	45.6%(1)	49.1%(1)	1.9%(8)

자료: 산업연구원 전문가들의 의견 등 종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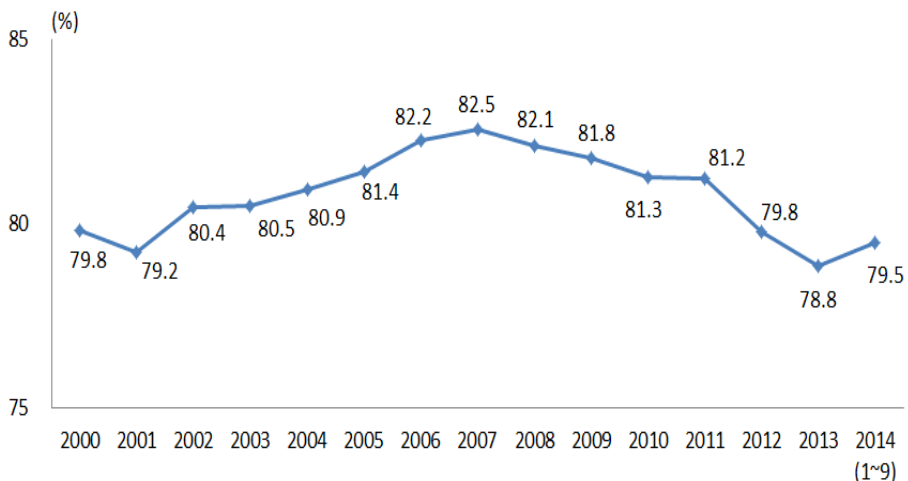
산업연구원이 주력산업이라고 분류하는 산업들은 다음과 같다. 기계산업군에서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의 3개 산업, 소재산업군에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우리나라 섬유 주요 수출품목은 산업용섬유 등 섬유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등의 4개 산업, IT 제조업군에서 가전, 정보통신 기기 (주로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4개 산업, 그리고 최근에 식품산업을 추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 주력산업들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5년 여 동안에 거의 80% 전후를 차지하여 이른바 ‘케시카우’ 혹은 ‘먹거리산업’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증가율은 최근 들어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하여,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07년 82.5%를 정점으로부터 점차 낮아져 2013년 78.8%로 낮아졌는데, 산업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2015년에는 78%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12.9%), 반도체(11%), 정유(8.6%), 석유화학(8.3%), 일반기계(7.3%), 조선(7.1%), 철강(6.0%) 등 수출비중 상위 7개 산업이 총수출에서 6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력산업의 수출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반드시 이들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들 주력산업들이 최근 들어 점점 더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데도 기인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 12대 주력산업 이외의 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데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력산업들의 수출비중 감소 추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들 주력산업들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 1> 총수출에서 12대 주력산업의 비중 변화



자료: KITA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이렇게 12대 주력산업의 수출비중이 하락하는 가운데, 아직 소규모이지만 이를 보완하는 산업들이 최근 빠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후발 산업들 중에서 규모나 성장세에서 두드러진 산업들은 7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수출규모 순으로 ① 중전기계, ② 플라스틱제품, ③축전지, ④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정밀기계), ⑤ 경보신호기 부품(전자응용기기), ⑥화장품(정밀화학), ⑦의료용 전자기기(전자응용기기) 등이다. 이들 후발 7대 수출호조업종의 1998~201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7.2%로 총수출 증가율 10%를 크게 상회하였고, 이에 따라 총수출대비 비중은 2010년 4.9%에서 2013년 6.6%로 상승하면서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 하락과는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비록 이들 산업들이 위의 주력산업들이 그동안 해 온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겠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좋은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후발 수출호조업종의 수출비중 추이(%)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1-9)	연평균 증가율 (1998~2013)
중전기계	0.94	0.98	1.5	1.8	2.0	1.7	16.9
플라스틱 제품	1.2	1.3	1.4	1.5	1.6	1.6	12.5
축 전 지	0.17	0.39	0.80	0.84	0.83	0.84	20.4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0.24	0.24	0.63	0.45	0.72	0.80	22.8
경보신호기 부품	0.08	0.33	0.27	0.89	1.0	0.80	29.3

자료: KITA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 7대 업종중 기타는 화장품(연평균 증가율 22.1%), 의료용 전자기기(15.9%).

2. 한국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우리나라 산업들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날로 제고되면서 한·중간 경쟁심화 (국제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포함), 그리고 엔화의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큰 환경 변화 요인과 이들이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중 간 경쟁 심화

한·중 주력산업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주력업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섬유와 가전은 한·중 간 경쟁강도가 매우 심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섬유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봉제산업 외에도, 원사·직물 등 소재분야에서 경쟁력이 급상승하며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가전의 경우에도 중국이 기술범용화, R&D투자 확대로 기술격차를 빠르게 축소하여, 중·고가 시장에서조차 가격우위의 중국과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두 산업보다는 다소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정유, 음식료,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등도 한·중간 경쟁강도가 높아지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 경기부양책이 변수이지만 중국 자급률 상승추세와 함께 석탄화학설비의 안정적 가동시 대중 수출을 제약할 전망이고, 일반기계의 경우에도 신환경보호법으로 대중국 공조기, 여과기 수출이 기대되나, 중국산 우선구매기조로 공작·금속성형기계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조선의 경우, 수요시장으로서 중국시장의 비중은 낮은 반면 중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견되고 있고, 중국의 자급도가 높아지는 조선기자재의 대중 수출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정유의 경우에도 중국의 자체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자급률 향상으로 대중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경우에는 중국내 식품안전 강화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내 경쟁심화와 수입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중국의 기술력이 2~3년내 한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생산 확대도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중국 스마트폰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과 경쟁력이 확대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제품들도 현지 생산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로부터의 대중 수출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반도체와 자동차는 중국과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경쟁력 우위에 있어 대중 수출영향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철강의 경우에도 한·중 간 경쟁강도가 심화되고 공급과잉으로 어려

<표 3> 2015년 한·중 경쟁관계 변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대중 수출 영향

대중국 수출영향	산업	주요 변화요인	한·중 경쟁 강도
부정적 영향 매우 큼	-섬유 -가전	-중국 봉제, 소재경쟁력 급상승 -중국기업이 중국내 점유율 확대	매우 심화
부정적 영향 다소 큼	-석유화학 -정유 -일반기계 -조선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중국 자급률 증가 추세 -중국의 과잉 자체설비 증설 등 -중국내 생산품 우선구매 기조 -중국의 고부가 선종·기자재 역량 제고 -중국 생산능력 급속 확대 등 -중국 스마트폰분야 급성장 등	다소 심화
영향 미미	-철강	-중국 경쟁력 강화로 경쟁심화 -차별화된 고기능성제품 수출확대	다소 심화
	-반도체 -자동차	-중국과 제품차별화 및 공정분업 관계 -중국 대비 경쟁 우위	현수준 유지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전문가들의 판단 종합.

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차별화된 고기능성 제품 수출확대로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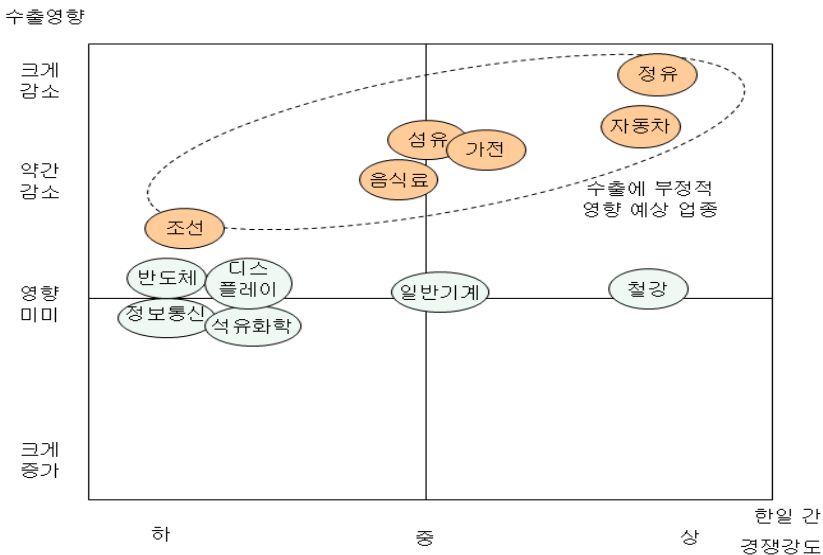
2) 엔저의 영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엔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일 간 경쟁강도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일 간 경쟁강도가 높은 정유와 자동차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 정유의 경우 일본과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경합도가 높아, 엔저 지속시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엔저로 수익성이 높아진 일본 중소형차업체의 공격적 마케팅(가격인하 등), 일본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일 간 경쟁강도가 중간 정도인 산업들로서, 섬유와 가전은 대일 수출비중은 낮지만 대세계 수출구조가 유사하여 세계시장에서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소폭이나마 수출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식품산업은 수출비중이 낮고 식재료 조달, 물류의 특성상 엔저 영향은 제한적이나, 수출비중이 높은 일본시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은 한·일 간 경합도가 낮아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일본 산업이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우리 주력선종분야에도 진입하며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엔저 지속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영향



자료: 산업연구원 전문가들의 의견 종합.

반면 철강, 일반기계,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은 한·일간 경합도가 낮거나 일본 대비 경쟁우위로 엔저에 따른 수출영향은 낮을 전망이다. 먼저, 철강은 한·일간 경합도가 높아 엔저에 따른 경쟁심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일본과 차별화된 강종 및 소재 특성 보유로 수출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기계는 엔저가 지속될 경우 공작·건설기계 등에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만, 일본이 가격대비 고품질의 한국산 부품수입을 확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일본과 제품차별화 및 경쟁우위로, 정보통신기기는 해외생산 확대 및 일본대비 경쟁우위로 수출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석유화학은 한·일간 주력제품군이 상이(한국-범용제품, 일본-특수제품)하여 기초유분을 제외하고 엔저에 따른 수출영향은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산업발전 방향의 모색

향후에도 한국산업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산업 즉, 신성장 산업들은 어떤 산업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1) 기존 주력산업의 변신

먼저, 주력산업의 변신이 절실하다. 중국의 추격이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은 기술력에서 앞서가면서 최근에는 엔저라는 가격경쟁력의 요소를 장착하여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력산업들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혁신적인 변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지속적으로 변신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기업 스스로의 차원에서든 그렇고 정부와 기업 합작을 통해서든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상당한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 왔고,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을 염두에 두었을 때, 더욱 좁게 보아서는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었을 때 중국 소비자들이 확실한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듯이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은 ① 제품 차별화, ② 차세대 분야 선점, ③ 생산공정 상류 부문 기술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주력산업들은 자신들의 업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여 획기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축적한 IT산업에서의 기술력 우위를 제대로 접목한다면 기존 주력산업들도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및 독일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아직 중국이 취약한 핵심 첨단부품소재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 좋은 예로, 자동차용 반도체, 탄소소재, 정밀화학(반도체, 2차전지 등 전자 관련 소재), 특수강 및 특수금속 등은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가 취약한 부문이지만 중국보다는 앞서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다.

2) 신기술산업의 육성

서두에서 제시하였듯이 향후에는 기존 주력산업만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계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신기술산업의 육성·발전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으로서 IT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기술이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바이오 분야에서는 질병 예방, 암치료, 건강보호 등의 분야가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신산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까다롭고 번덕스럽기까지 한 소비자의 구미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경쟁자들과는 다른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단독 기술보다는 혁신기술간, 제품간, 제품-서비스간에 ‘융합’을 추구하여야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산업 제품으로는, 자동차산업에 IT와 SW가 융합된 스마트카, IT와 바이오센서가 융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IT를 주거에 융합시킨 홈네트워크, 제조업 생산 체계에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시킨 자동생산시스템, IT·BT·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u헬스케어 제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3) 새로운 산업 소스: 서비스(문화)와 제조업 기술의 결합

최근 지식과 무형자산이 주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는 지식경제화가 진전되고 산업내 무역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제조업체의 서비스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제품차별화 경쟁력과 관련하여 기술경쟁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서비스경쟁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구조가 디자인, 연구개발 등 상류부문과 마케팅 등 하류부문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OECD는 산업별 가치사슬의 분화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경쟁력을 창출해 낸 사례들을 분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 융합 강화는 전체적으로 제조업체의 고부가치화(고가격화), 매출과 부가가치에서 서비스 비중 확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의 바람직한 제품과 서비스 융합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를 제품에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방식에서 제품과 동등한 위치

에서 서비스를 파악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비스 활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사슬의 상하류부문에서의 서비스 활용에 초점을 둔 제품과 서비스융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T서비스 활용의 경우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생산효율화나 비용절감보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과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 등 전문지식서비스 활용과 관련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지식서비스별 제품과 서비스 융합의 표준화 또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4> OECD가 제시한 산업별 가치사슬의 분화와 통합

산업	내용	사례
경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와 서비스 분화 · 공장 없는 제조업 	신발(나이키), 컴퓨터(델, IBM)
중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와 서비스 통합 · 제품수명 전주기에 걸친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사슬 연장) · 중공업체의 시스템업체로의 변화(제품 성과 모니터링, 유지보수 등 서비스 제공) 	항공기엔진(롤스로이스), 복사기(HP)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와 서비스 통합 · 자체 브랜드 서비스기기나 제품 생산 	태블릿 PC(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e-리더기(아마존), 유통자체 브랜드 제품(유통업체)

자료: OECD, 2013.

4. 산업정책의 방향

위와 같은 산업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었을 때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술개발의 촉진,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뿌리산업의 육성 등의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존 산업정책에 덧붙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이 중국 등의 추격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건대, 지금부터는 당연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제품이 출현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착한 새로운 기업 혹은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창조경제의 발현을 위한 제도적 환경 혹은 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들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의 손길이 미쳐야 할 것이다. 아직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미리 기업들 간의 M&A를 추진하게 하여 더욱 경쟁력

이 있는 기업들이 산업을 담당하게 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들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어 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 신산업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혁신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융합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융복합과 연계협력을 저해하는 규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벤처·창업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M&A,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개발의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으려면, 엔젤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R&D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도와주는 엔젤투자자 또는 멘토들이 아이디어를 기술개발로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실리콘 밸리에는 이러한 엔젤투자자가 수도룩한 상황이고 미국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우도 실제로는 실리콘밸리의 엔젤투자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젤투자자는 성공가능성 높은 사업과 위험은 크나 수익성 높은 사업을 적절히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자금들은 엔젤투자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 차원에서 위험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이 이루어진 R&D 결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기까지는 또한 이른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미 많은 사업을 해본 유능한 사업가 혹은 이미 큰 사업을 이룬 선배 벤처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실리콘 밸리에는 주로 성공한 선배 벤처기업이 새로운 혁신기업들을 인수해서 사업을 키우는 경향 (MS,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보이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사업에 성공한 바 있는 대기업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비판 받아 온 기술탈취, 기존 혁신사업가에 대한 푸대접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경쟁력상의 부실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의 퇴출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경영상의 부실요

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에 효율적인 경영이 주입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M&A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 및 외국기업들이 M&A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정리가 촉진되고 나아가 동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삼성과 한화의 기업 거래의 사례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선제적 산업구조조정 of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기업간 노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 과제로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 및 외국인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M&A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조세 등의 거래 비용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보완대책으로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인력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직업 재훈련의 확대, 인력수급 시장의 활성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대책의 강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가치사슬 상 강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창출 활동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를 생산의 이점이나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낮아 과거 중국이 우리의 생산기지로서 유리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이점이 상실되고 있어 단순 생산기지는 동남아지역으로 이전(삼성전자의 연간 휴대폰 생산 : 2억 4천만대 등)되는 추세이고,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남미, 동구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자동차 산업에서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의 공장 본격 가동과 더불어 멕시코 투자 결정의 사례 등).

필요한 경우 현지시장 적합 제품 개발이나 현지 인력 활용 등을 위해서 R&D 부문도 해외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대기업들은 선진국에서 해외의 선진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연구소 등을 설립하였고,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값싼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며,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국가별 가치사슬 상 강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강점과 결합하여 제3국 및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일본의 앞선 제품개발기술과 한국의 가공기술 및 해외 판매망 등을 결합하여 제3국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영국의 콘텐츠와 한국의 제작기술을 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도 국방 및 우주산업을 바탕으로 기초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우리의 산업화기술과 중국의 기초기술간 결합

을 통한 제품화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천기술의 연구개발부문이나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의 개발 및 생산 등 기존의 부가가치사슬과 다른 부문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할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 산업의 역할을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